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이 7월 26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7월 11일 개막식 모습.

천년의 예술 미래로…2024 불교미술대전 개막

7월 26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
불교작가 27명 작품 48점 전시

올해로 5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 7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성대한 시작을 알렸다.

'천년의 예술, 미래로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에서는 작가 27명의 작품 48점을 만나볼 수 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감지에 금니로 쓴 탑다라니작품 '반야심경'과 옻칠 작품 '연(蓮)'을 비롯해 원학 스님이 한지에 묵으로 작업한 '묵매(墨梅)', 정운 스님의 도자기 목탁 '수행의 길목에서', 유현정 작가의 '지장시왕도', 백용식 작가의 '감은사지 동탑 사리구 재현' 작품 등이 관람객들을 맞는다.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예술인들이 정진과 협력을 통해 창작하는 불교예술은 현대의 불교문화이자 성보로 탄생했다"면서 "앞으로도 불교미술대전이 예술인들의 교류의 장으로, 작가의 기량이 발전되는 밑거름과 소통의 장으로 더욱 확장해나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축사에서 "우리 민족문화의 근간이 돼 온 불교미술은 앞으로 미래세대에 전승해야 할 값진 유산이며, 불교미술 부흥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작가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새로운 무형유산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교미술대전이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신진작가들의 등용문이 돼, 천년을 이어 온 우리나라 불교미술이 앞으로 다가올 천년의 미래에도 그 맥을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기획전은 7월 26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임은호 기자

역대급 폭우에 사찰·불교유산 피해 속출

조계종 · 국가유산청 긴급 점검
세계유산 봉정사 내 석축 무너져
대조사 석조미륵상 사면 붕괴 등
충청 · 경상 사찰에 호우 피해 집중
국가유산청 "신속한 복구 나설 것"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산사태가 발생한 부여 대조사에 7월 10일 방문한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긴급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석축 붕괴로 피해를 입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 배면.

7월 9일 오후부터 7월 10일 오전까지 충청·호남·경북 지역에 내린 역대급 집중호우에 지역 사찰과 불교문화유산의 피해가 발생했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혜공 스님)와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이 7월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호남·경북 지역 사찰에서 16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에 등재된 안동 봉정사는 호우로 인해 발생한 토사 유입으로 경내 극락전 배면에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 문화유산돌봄센터에서 출동해 잔해 처리 및 긴급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여 대조사는 산사태로 인해 경내 명부전이 일부 파손되고 수각이 멸실되는 큰 입해를 입었다. 또한 국가지정유산 보물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불상 아래 쪽 사면이 붕괴되기도 했다.

부여 오덕사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사찰 진입로가 유실됐으며, 요사체 측면 수목들이 전도됐다. 현재는 잔해 처리 후 복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산 쌍계사는 사방댐과 화장실 축대가 무너졌으며 명보전의 외벽이 갈라지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는 지역 문화유산돌봄센터에서 긴급 조치를 취한 상태다.

영천 거동사에는 경내로 토사가 유입돼 전각 일부가 침수됐으며, 죽림사는 산사태로 인해 산신간·나한전·공양간에 피해가 발생했다.

김천 직지사 북암은 경내에 토사가 유입됐으며, 김천 계림산은 수목 전도로 전각 처마가 파손됐다. 구미 대둔사와 영주 부석사, 경주 불국사 석굴암은 토사가 유입되는 피해를 입었다.

전북 완주군 화암사는 보호구역 경계에 토사가 유출돼 진입로가 유실됐다. 현재는 잔해를 처리하고 접근 금지 조치를 한 상태이며, 향후 배수관 정비 및 복구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익산 숭림사는 축대 붕괴와 수목 전도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홍성 청광사와 보은 법주사는 경내 진입로에 토사가 유입됐으나 현재는 복구를 마친 것으로 알렸다.

국가유산청은 중대본 2단계 발령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각 지역 문화유산돌봄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한 후 위험물 제거, 우장막과 안전선 설치 등 피해확산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치를 하고 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7월 10일 산사태 피해현장인 부여 대조사에 직접 긴급 현장점검을 나서기도 했다. 최응천 청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역 문화유산돌봄센터 등의 경미보수 인력의 신속한 투입과 긴급보수비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번 장마전선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가유산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보살계연구회 결성…첫 학술대회 연다

7월 21일 해인사서 학술대회
'보살의 이상과 현실' 주제로
"계율 중심 연구 학회 발전"

보살계(菩薩戒)와 계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보살계연구회가 결성돼 첫 학술대회를 연다.

해인사 승가대학·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경남대 교양교육연구소는 7월 21일 오후 1시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보살의 이상과 현실- 인도에서 한국까지'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보살계연구회 결성되며 시작됐다. 보살계연구회는 보살계를 연구하는 신진학자들의 연구모임으로 이상엽 서울대 교수와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연구회 회장은 이상엽 교수가 맡았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의 기조법문으로 시작되며 2부 인도·중국불교의 보살계, 3부 한국불교의 보살계 이해로 나눠 대회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의 선(善)의 기준(지묘 스님, 일본 하나조노대) △금제(禁制)를 수행하기- 〈보살지〉에 나타난 지계바라밀(持戒波羅蜜)의 특징(이상민, 고려대) △천태 지의의 〈입제법〉을 통해 본 성문계와 보살계(김보과, 동국대)가 발표된다.

3부에서는 △'진불수회계(瞋佛受悔戒)' 관련 〈범망경〉 주석 연구(유화정, 서울대) △대정신수대장경판본 〈범망경술기권제일(梵網經述記卷第一)〉(T2797)의 비판적 검토- 펠리오본 〈범망경술기〉(P.2286) 등과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박성일, 서울대) △성소수자에 있어서 출가와 수계의 문제(금강 스님, 해인사 율학승가대학원)가 각각 발표된다.

법장 스님은 "이번에는 보살계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후로는 율장이나 청규 등으로까지 확대하여 연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 도반' 800명 늘었다

초록릴레이 '생명의 봄 피어라' 결과 발표

108명 단원이 모연 나서
환경보호 활동 적극 지원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가 회원 배가 운동을 실시, 54일 만에 800여 명의 신규회원을 모집하는 데 성공했다.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 마련된 만큼 다양한 환경보호 운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불교환경연대는 7월 1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회원 확대 초록릴레이 '생명의 봄 피어라'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사진〉

'생명의 봄 피어라' 초록릴레이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실태를 알리고, 환경보살로 함께 나아갈 인연을 모으자는 발원에서 비롯됐다. 올해 1월 '전국 활동가 워크숍'에서 신규회원 모집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고, 2월부터는 추진단을 꾸려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3월, 추진단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은 108명의 모연단원이 위촉됐다. 각 단원은 4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신규회원 3명 모집을 목표로 모연에 나섰다. 모연단원의 노력으로 54일간 서울 350명, 광주·전남 268명, 울산 116명, 부산 30명, 전북 30명 등 총 794명의 신규회원이 가입했다. 애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여한 셈이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를 토대로 사찰의 환경보호 실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불자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에 주력한다. 특히 신규회원이 소속감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침체된 불교계 NGO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연대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부처님의 생애
붓다
The Buddha
"불교가 뭐지? 부처님은 또 누구시지?"
불자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부처님의 생애 『붓다』가 출간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Tel 02-2264-4714 Fax 02-2268-7851 e-mail abook@jeongjincorp.com